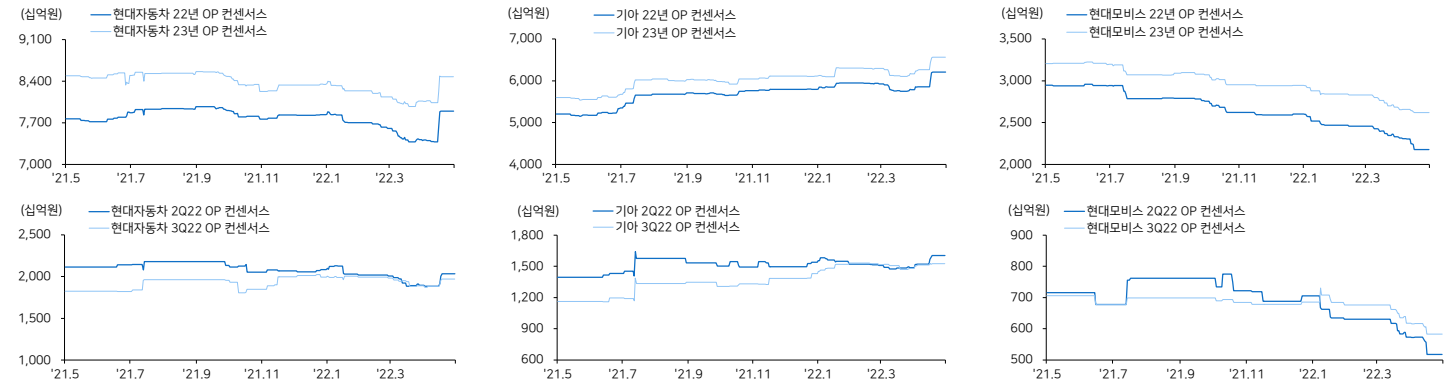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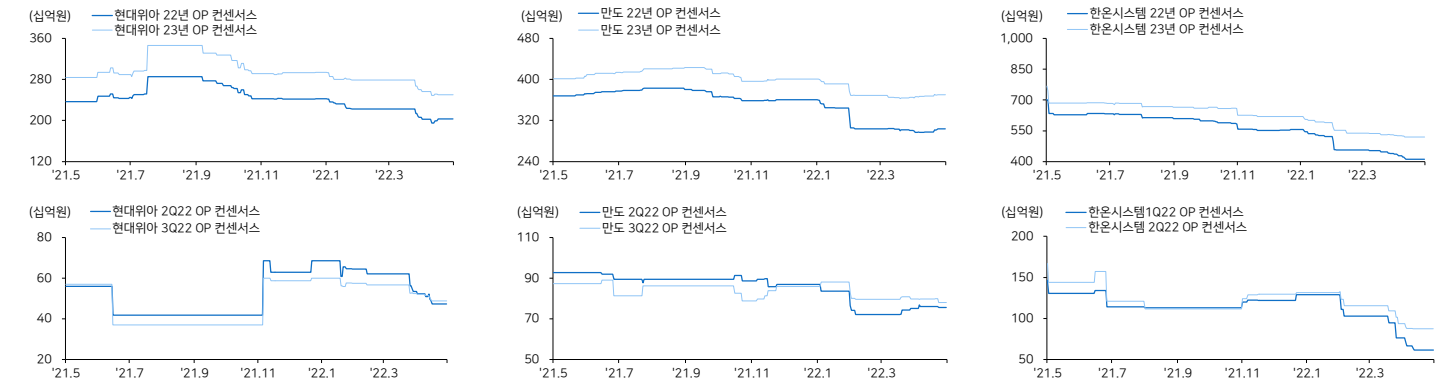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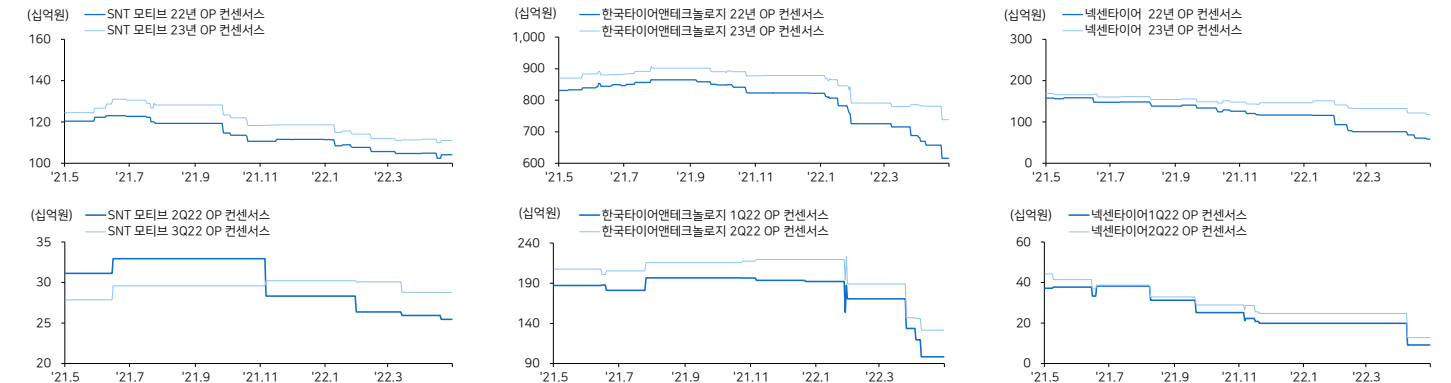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노조 "美 공장 설립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강력 대응" (조선비즈)

현대차 노조는 "단협은 해외 공장 신·증설시 조항에 설명회를 열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미국 공장 설립은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함. 현대차 측은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
<https://bit.ly/3MrU3b7>

현대차, RV 평균가격 작년보다 290만원 올라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올해 1분기 국내판매 RV차량 평균가격은 4,528만원으로 YoY +6.8% 상승함. 동기간 기아 RV차량 평균가격도 +2.0% 상승함. 해외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상할 전망.
<https://bit.ly/3MnGRUE>

Tesla's 1 million robotaxis by end of the year becomes '1 million people in FSD Beta' (electrek)

일론머스크는 이번 주 All-in Summit에서 '연말까지 FSD 베타 테스터가 100만 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함. 여전히 100만 대의 로보택시 배포의 목표는 제한적.
<https://bit.ly/3wBx6e0>

Motor vehicles boost U.S. business inventories in March (Reuters)

3월 미국 기업 재고에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재고는 예상치었던 1.2%를 상회하는 1.6% 증가율을 기록(2월 1.4%). 또한 자동차 소매 재고는 예상치 2.3%를 상회하는 2.5% 증가를 기록함.
<https://reut.rs/3sG07YW>

현대차 아이오닉5, 미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배송' 시작 (뉴시스)

현대차는 17일 미국 자율주행업체 엠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우버이츠 고객을 위한 레벨4수준의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함. 아이오닉5를 자율주행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사용.
<https://bit.ly/3lkz523>

전기차 수요 못 따라가는 리튬·니켈---배터리 원재료 확보 '사활' (전자신문)

전기차 수요 증가로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니켈 등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름. 2030년 리튬과 니켈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산업은 중국의 원재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
<https://bit.ly/3PvX50n>

Why EV startups are facing a cash squeeze (Automotive News)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EV 기업의 전환사채 비용이 10% 이상이며, 담보자산도 부족해 자본조달이 힘든 것으로 알려짐. SPAC으로 상장한 대부분 EV 기업(Lordstown, Canoo 등)은 이제 상장 전과 유사한 재정 상태로 회귀.
<https://bit.ly/3LoB5Sj>

Daimler Truck sees high demand cushioning raw material price impact (Reuters)

Daimler Truck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2분기 부담될 수 있으나, 기록적인 수요로 높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또한 반도체 공급부족은 하반기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점함.
<https://reut.rs/3sHTAd6>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